

미국발 훈풍에 올라탄 증시, 그리고 FICC 시장의 숨은 시그널

장중 매크로 동력, 코스닥 정책 호재,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종합 분석

장중 핵심 요약: 시장을 지배하는 3가지 테마



[연준 비둘기파 발언]

나스닥
+1.40%

전일 급등

-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(Risk-On) 심리를 강력하게 견인.



[코스닥 정책 호재]

KOSDAQ
+2.87%

812.87 단숨에 회복

- 상장폐지 기준 강화 6개월 유예 및 코넥스 이전 허용 소식에 중소형주 투자 심리 급반등.



[인플레이션 경고등]

WTI 원유
\$91.78

6주 만에 최고치 돌파

- 중동 긴장 재고조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유가 급등. 주식 시장 낙관론 이면의 숨은 리스크.

글로벌 매크로 동력: 릴레이 훈풍의 진원지



국내 증시 대시보드: 코스닥의 압도적 아웃퍼폼

KOSPI



6,668.61
+89.13pt (+1.35%)

美 금리 진정에 따른 외인/기관 매수세
유입으로 1%대 안정적 반등.

KOSDAQ



812.87
+22.66pt (+2.87%)

닷컴 만의 반등. 800선 단숨에 회복하며
코스피 대비 상승폭 2배 상회.

코스닥 랠리의 숨은 촉매제: 상장폐지 제도 개편

기존 제도 (과거)

- 실적 악화 및 시총 미달 기업 발생
- 즉각적인 상장폐지 리스크 노출
- 투자 심리 위축 및 투매 현상

오늘의 정책 호재

상장폐지 시총 기준
상향 적용

6개월 유예

코넥스 이전 상장 허용

시장 반응 (현재)

- 퇴출 리스크 단기 소멸
- 한계 기업들의 연착륙 기대감
- 코스닥 중소형주 전반의 숏커버링 및 투심(Sentiment) 급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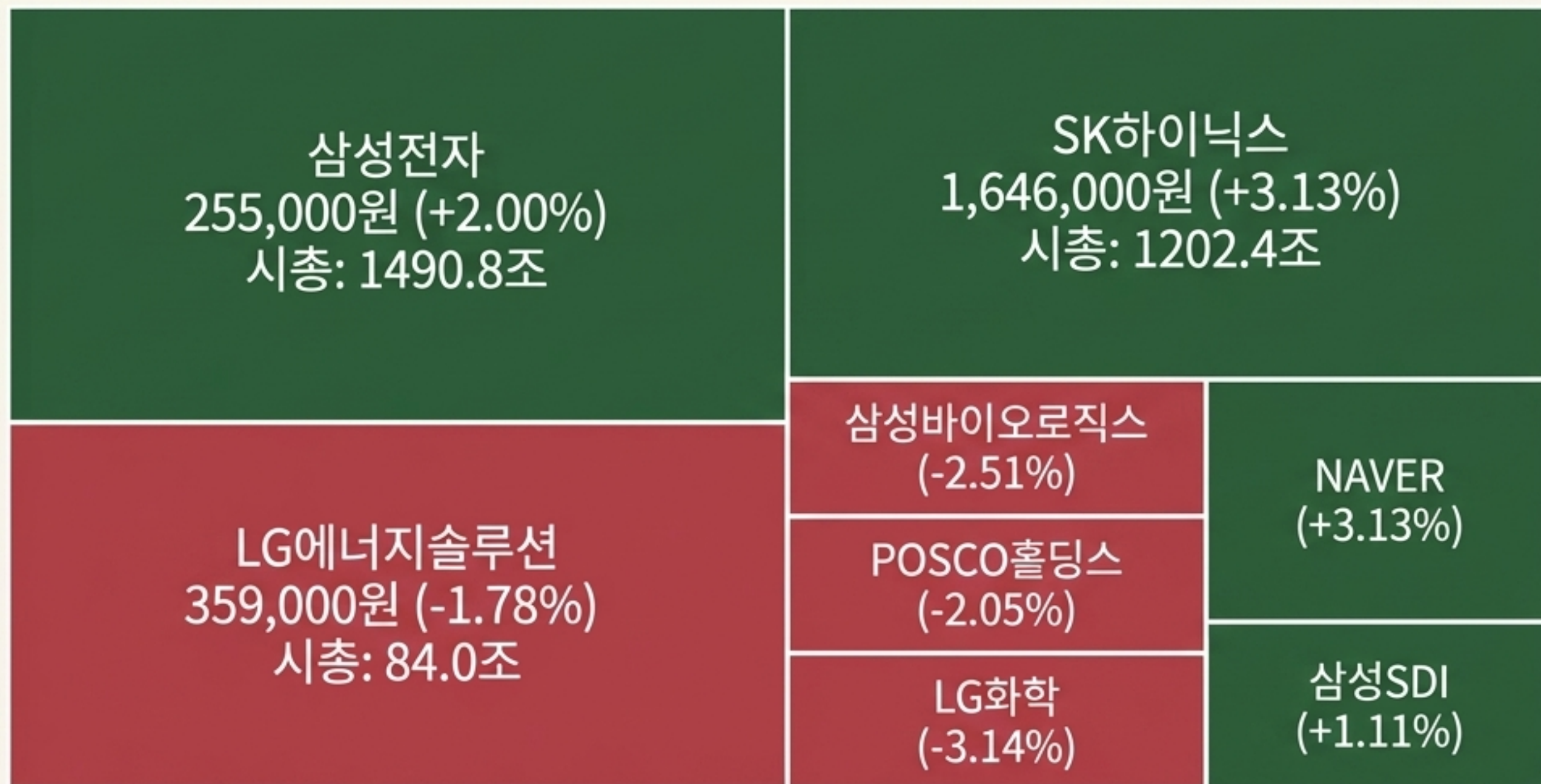
산업별 투심 맵: 확연한 쏠림 현상

제조업 (+4.53%)	은행 (+3.29%)	섬유의복 (+3.16%)	증권 (+2.90%)
운수장비 (+2.46%)	보험 (+2.05%)	의약품 (+2.89%)	
통신업 (-0.73%)			
전기가스업 (-1.69%)	유통업 (-1.28%)	음식료품 (-0.94%)	

Key Insight

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제조업 및 금융(은행/증권) 섹터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, 방어주 성격의 전기가스, 유통, 음식료품은 철저히 소외되는 '전형적인 Risk-On' 장세.

주도주 딥다이브: IT 투톱이 이끄는 지수 상승



반도체 투톱(시총 합산 약 2,700조)이 동반 2~3%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사실상 독인. 반면 2차전지 및 바이오 대장주는 약세를 보이며 철저한 종목 장세 연출.

미국 증시 현황: 기술주 반등 속 부동산 섹터의 이상 급등

S&P 500
7,747.71
+1.06%

NASDAQ
26,217.83

전일 장중 1.4%↑ 반등 시현,
금리 동결 기대감 반영

Sector Anomalies

부동산



에너지

+2.00%

자유소비재

+1.00%

정보서비스

+0.97%

유틸리티 -1.70%

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섹터로,
연준 비둘기파 발언에 가장 폭발적
으로 반응 (1주 등락 -8.65%에
대한 강력한 숏커버링/반발 매수).

FICC 시장 동향 I : 주식 시장을 지지하는 유동성 시그널 (Risk-On)

원/달러 환율

₩1,358.25
-5.30원



달러인덱스 하락(0.5, -0.32) 및 유로화 강세(ECB 금리 경로 재평가)에 연동되며 원화 가치 상승. 외국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 환경 조성.

비트코인

\$103,000
+\$1,240



현물 ETF 순유입 지속.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강력하게 뻗어 있음을 증명.

경계 지표 알럿: 화려한 반등장 이면의 인플레이션 리스크

WTI 원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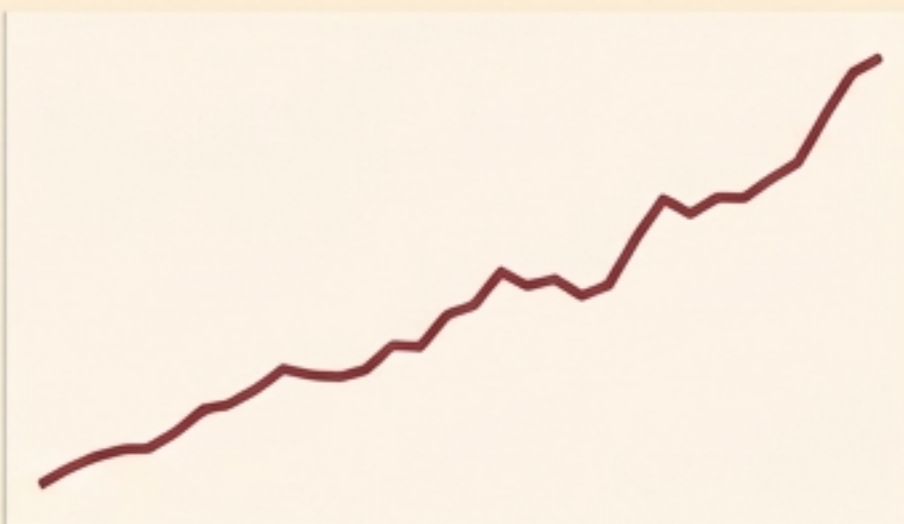
\$91.78 (+\$2.62)



중동 긴장 재고조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나흘째 상승하며 91 달러 돌파. 정유주(에쓰오일 등)는 급등했으나, 매크로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.

금(Gol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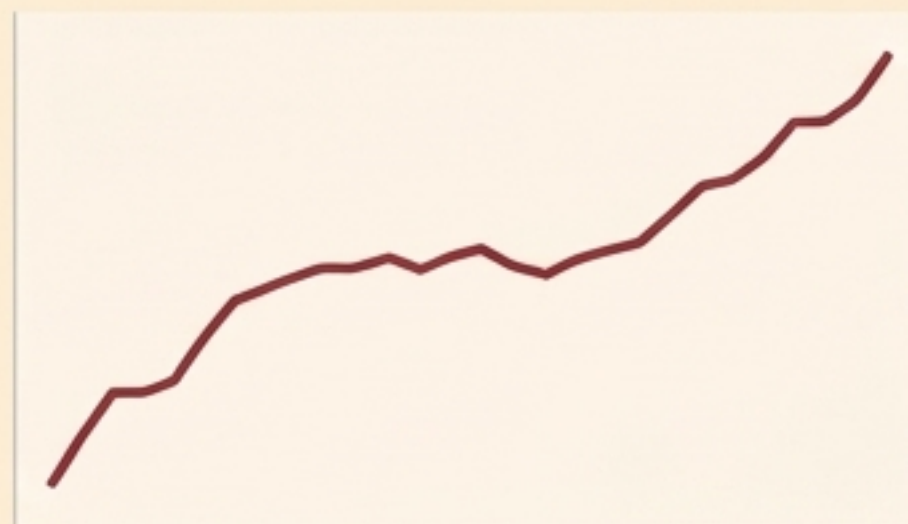
\$500 (+\$18)



주식시장 Risk-On 장세 속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역설적으로 지속되며 금값 고공행진. (국내 순금 1돈 살 때 87만원 선).

미 국채 10년물

4.764% (+5bp)



연준 이사의 비둘기 발언에도 불구하고, 10년물 장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. 향후 증시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잠재적 뇌관.

시장의 두 가지 얼굴: 주식의 환호 vs 원자재의 경계 (Cross-Asset Signals)

낙관의 축 (Risk-On / Growth)	
Core Driver	연준 금리 동결 기대감 확산
Signals	• KOSPI/NASDAQ 1%대 상승 • 비트코인 10만불 돌파 • 원/달러 환율 하락(안정)
Market Psychology	유동성 장세 기대 및 숏커버링 (단기 낙관)

경계의 축 (Risk-Off / Inflation)	
Core Driver	지정학적 불안 및 공급망 리스크
Signals	• WTI 91달러 돌파 • 금값 상승 • 장기 국채금리(10Y) 상승
Market Psychology	•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스태그플레이션 헷지 (중장기 경계)

Synthesis Insight: 증시는 단기 훈풍을 즐기고 있으나, FICC 시장은 '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시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'는 시나리오를 프라이싱 중. 추격 매수 시 섹터 선별에 극도의 주의 요망.

장후반 및 주간 핵심 관전 포인트 (Watchpoints)

1

코스닥 정책 호재의 지속성 확인

상장폐지 유예에 따른 중소형주 숏커버링이 장 막판까지 유지되는지, 혹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전환되는지 수급 주체(외인/기관) 확인 필요.

2

에너지 발(發) 인플레이션 전이 여부

WTI 91달러 돌파가 일시적 지정학 노이즈인지, 추세적 상승인지 확인. 미국 고용 지표 발표와 맞물려 연준의 스탠스에 미칠 영향 주시.

3

반도체 투톱 외의 확산세

오늘 장을 견인한 삼성전자/SK하이닉스의 상승 온기가 하반기 실적 가시성이 높은 타 섹터(전력기기, 조선 등)로 확산(Spill-over)되는지 모니터링. (향후 1년 수익률 기대치 조정을 권고하는 시장 일각의 신중론도 염두에 둘 것).